

제 역할 못하는 ‘버스베이’ 되레 승객 안전 위협

길 한가운데 승·하차, 위험천만
단속·규제 없어 교통혼잡 초래
“불법 주·정차 단속 선행돼야”

광주시가 시내버스 정차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버스베이가 오히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버스기사들이 버스베이 정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반 차로에 버스를 정차 하면서 승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가 도로 정차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승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있다.

버스베이는 주행도로에서 보도 방향으로 1차선 정도 차도를 넓힌 공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승객을 보도 가까이에서 승하차를 유도 하는 안전 교통시설이다.

현재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소는 2,379개이며, 이 가운데 15%는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주행차로로 진입하는 일이 번거로워 도로에 정차하면서 버스베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버스베이를 이용하지 않고 주



26일 오전 광주시 북구 119임동 안전센터 앞 시내버스정류장 버스베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시내버스가 도로에 정차, 한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행 차로에 정차를 하는 것과 관련, 규제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고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버스정류장.

이곳의 버스베이는 오래전부터 인근 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녁 시간의 경우 버스정류장 앞 차선은 수십대의 불법 차량도 즐비하다.

이곳에 들어서는 시내버스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버스베이 안까지 진입하지 않고 주행 차로에 정차, 승객을 내려주고 있었다.

승객들은 정거장과 떨어져서 멈춘 시내버스

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빠져나와 버스에 탑승했으며, 버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승객을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내버스를 뒤따라오던 한 SUV차량은 주행 차선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급하게 옆 차선으로 바쁘다가 뒷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일부 버스는 버스베이 근처에 불법주정차나 장애물이 없는 데도 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서구의 버스정류장도 버스베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는 데도 시내버스는 주행차선 한쪽을 걸치고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도로 위에서 버스가 승·하차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욱 높다.

김창수(78) 씨는 “버스들이 정류장과 멀리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뛰어가기도 힘들다”며 “시민 형세를 들여 설치한 버스베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내버스의 버스베이 정차에 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버스의 버스베이 정차에 대한 단속이 없어 사실상 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면서 “버스베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 근처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경찰, ‘집단·보복폭행’ 조폭 40명 일망타진

전담팀 구성, 6개월 만에 검거

12명 구속·28명 불구속 입건

도심에서 집단·보복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조직간 전면전을 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을 광주경찰이 6개월간 수사 끝에 일망타진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조폭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로 조폭 1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파 조폭 5명은 지난 1월 말 광주 서구에서 다른 B파 조폭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B파 조폭들이 나이 어린 상대편 조직원들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계하다 오히려 나이

어리고 숫자가 많았던 A파 조폭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A파 조직원 한 명에게 찾아가, 광주 북구에서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대라고 협박하며 보복 폭행했다.

2개 조직이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을 주고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급속도로 양대 조직간 다툼으로 확대됐다.

이 사실은 평소 조폭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던 경찰의 첩보망에 포착됐고,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A파 조직원이 상대편 조직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광주의 한 유흥지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급히 강력범죄수사대원들을 집결지로 급파했다.

경찰의 현장 출동 사실을 눈치챈 A파 조직원

은 즉각 해산해 잠적했고, B파 조직원들도 경찰의 수사에 몸을 숨겼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양대 조직 조폭 40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잠적한 이들 조폭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초기에는 4개 팀 20여명 강력범죄수사대원들을 투입해 조폭들을 한 명씩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착수 6개월 만에 40명 가담자를 모두 검거하고, 이들 중 집단·보복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2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자칫 조직폭력 조직 간 다툼으로 번질 뻔한 사건을 신속한 대응으로 예방한 사건이다”며 “경찰 수사에 잠적한 범인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간병인, 중증환자 계좌서 1억을”...경찰 수사

간병인이 중증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스마트폰 거래로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간병인 A씨의 사기 행각을 수사해달라는 환자 가족 측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재택 간병인으로 일하는 A씨가 피

해 환자의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9,900만원을 무단 계좌이체 방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계좌이체 거래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졌는데 고소인은 A씨가 환자와 종일 함께 생활하면서 잠금 해제 방법을 알아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윤영봉 기자

여수경찰, 노인통장 훔쳐 돈 인출 20대 구속

새벽시간 주택에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을 돌며 수천만원을 인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6시께 여수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후 여수, 순천, 광양 일대를 돌며 46회에 걸쳐 5,900만원을 인출한 A씨(27)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

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령의 주민이 사는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고,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보관한다는 점을 노리고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구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과 동행하겠습니다

중간소음 에어블럭 (BO-30)

보온 에어단열재 (BO-30A / BO-30B)

2개의 공기층으로 중간 소음이 방지되는 혁신적인 단열기술!
3개의 공기층으로 방음 효율을 높이는 기술!!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 24267332

(주)한일파이프 **(주)한일보온** www.보온.com

TEL 062.365.5577~8 FAX 062.365.558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1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로 16

E-mail : hanil5577@naver.com